

장성한 그리스도인을 위한 큐티



요한복음 46 주차 (20:11~20:31)

(2015년 12월 6일 - 2015년 12월 12일)

(제3권 46호)



Missions

장성한 그리스도인을 위한 큐티 **B2B** 제 3 권-제 46 호

창간일: 2014 년 11 월 2 일

발간일: 2015 년 12 월 6 일

발행처: B2B Missions

800 Roosevelt, Irvine, CA 92620

www.b2bm.org

인용성경

한글성경: 대한 성서공회에서 출간한 개역한글

헬라어 성경: Deutsche Bibelgesellschaft, D-Stuttgart 에서 출간한 Greek New Testament 4th edition (1993)

히브리어 성경: Deutsche Bibelgesellschaft, D-Stuttgart 에서 출간한

BIBLIA HEBRAICA STUTTGARTENSIA (1997)

번역 및 해설

편집책임: Steve Kim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DMin Program, Talbot School of Theology)

편집위원: Sean Roh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Th.M, Gordon-Conwell Theological Seminary)

Charlie Cho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Th.M, Talbot School of Theology)

이 큐티 자료는 회원 여러분들의 작은 정성으로 만들어 집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파하는 힘이 됩니다. 일주일에 1 불 (한국 약 1000 원) 이상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을 원하시는 분은 B2B Missions 의 홈페이지 (www.b2bm.org) 를 방문하셔서 회원으로 가입해 주십시오.

이 책에 수록된 원어해석과 해설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한 해석에 대한 아이디어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회원들에게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Copyright © 2015 by B2B Missions.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은 저자의 고유한 아이디어를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의 인용 또는 전제시 반드시 B2B Missions 또는 저자의 허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알아 보지 못한 마리아 (주일)

오늘의 본문 (요 20:11~18)

11.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푸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12.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 편에 하나는 발 편에 앉았더라
13.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14.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15.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로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 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16.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오니여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17.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18.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원문해석하기

- (11절) 마리아는 울면서 밖에서 무덤을 향하여 서 있었습니다
(Μαρία δὲ εἰστήκει πρὸς τῷ μνημείῳ ἔζω κλαίουσα.)
그런데 그녀가 울면서 (ὡς οὖν ἔκλαιεν,
무덤 안을 들여다 보았습니다 (παρέκυψεν εἰς τὸ μνημεῖον)
- (12절) 그리고 그녀가 두 천사를 발견했습니다 (καὶ θεωρεῖ δύο ἀγγέλους)
흰옷을 입고 있는 (ἐν λευκοῖς καθεζομένους.)
하나는 머리를 향하여 하나는 발을 향하여 (ἓνα πρὸς τῇ κεφαλῇ καὶ ἓνα πρὸς τοῖς ποσίν.)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되었던 곳에서 (ὅπου ἔκειτο τὸ σῶμα τοῦ Ἰησοῦ.)
- (13절) 그(천사)들이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καὶ λέγουσιν αὐτῇ ἐκεῖνοι·)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γύναι, τί κλαίεις;)
그녀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λέγει αὐτοῖς)
그들이 나의 주를 가져갔습니다 (ὅτι ἤραν τὸν κύριόν μου.)
그런데 나는 그를 어디에 두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καὶ οὐκ οἶδα ποῦ ἔθηκαν αὐτόν.)
- (14절) 그녀가 이 말을 한 후 뒤로 몸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ταῦτα εἰπούσα ἐστράφη εἰς τὰ ὀπίσω)
그리고 그녀가 서계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καὶ θεωρεῖ τὸν Ἰησοῦν ἐστῶτα)
그리고 그가 예수님임을 몰랐습니다 (καὶ οὐκ ᾔδει ὅτι Ἰησοῦς ἐστίν.)
- (15절) 예수님이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λέγει αὐτῇ Ἰησοῦς·)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고 있느냐? (γύναι, τί κλαίεις; τίνα ζητεῖς;)
그녀가 그가 동산지기라고 생각하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ἐκεῖνη δοκοῦσα ὅτι ὁ κηπουρός ἐστιν λέγει αὐτῷ·)

- 주여 당신이 그를 옮겼으면 (κύριε, εἰ σὺ ἐβάστασας αὐτόν,
 그가 놓인 장소를 나에게 말해 주세요 (εἰπέ μοι ποῦ ἔθηκες αὐτόν,
 그러면 내가 그를 가져 가겠습니다 (κἀγὼ αὐτόν ἄρῶ.)
 (16절) 예수님이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λέγει αὐτῇ Ἰησοῦς·)
 마리아야 (Μαριάμ.)
 그녀가 돌아서게 되어 히브리말로 그에게 말했습니다 (στραφεῖσα ἐκείνη λέγει αὐτῷ Ἑβραϊστί·)
 랍오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임) (ραββουνι (ὃ λέγεται διδάσκαλε).)
 (17절) 예수님이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λέγει αὐτῇ Ἰησοῦς·)
 나를 만지지 말라 (μὴ μου ἅπτου),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께 올라가지 못했다 (οὐπόω γὰρ ἀναβέβηκα πρὸς τὸν πατέρα·)
 나의 형제들에게 가라 그리고 말하라 (πορεύου δὲ πρὸς τοὺς ἀδελφούς μου καὶ εἰπέ αὐτοῖς·)
 내가 나의 아버지 너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께 올라간다
 (ἀναβαίνω πρὸς τὸν πατέρα μου καὶ πατέρα ὑμῶν καὶ θεὸν μου καὶ θεὸν ὑμῶν.)
 (18절) 막달라 마리아가 갔습니다 (ἔρχεται Μαριάμ ἢ Μαγδαληνῆ)
 제자들에게 소식을 전하러 (ἀγγέλλουσα τοῖς μαθηταῖς)
 내가 주를 보았습니다 (ὅτι εἶώρακα τὸν κύριον),
 그가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라고] (καὶ ταῦτα εἶπεν αὐτῇ.)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14 절을 읽으십시오. 천사와의 짧은 대화를 한 후 그녀는 몸을 돌리게 되었고 그녀 앞에서 계시는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예수님을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마리아는 천사와의 대화 후 자신의 몸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요한이 수동태를 사용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트라페 에이스타 오피소’ (ἐστράφη εἰς τὰ ὀπίσω)에서 동사 ‘에스타라페’ (ἐστράφη)는 ‘돌리다’라는 의미의 동사 ‘스트레포’ (στρέφω)의 aorist, 수동태, 3 인칭 단수, 서술형 동사입니다. 이 단어가 수동태로 쓰일 때에는 돌리키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었음을 의미합니다. 즉, 반드시 몸을 돌려야만 하는 상황이 되어서 할 수 없이,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는 뜻이지요. 마리아는 능동적으로 몸을 돌린 것이 아니라 어떤 힘에 이끌려 몸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녀의 몸을 돌리게 한 알 수 없는 그 힘은 무엇이였을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녀가 어떤 인기척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강한 힘이 그녀에게 전해졌을 수도 있지요.

어쨌든 그녀는 몸을 돌렸고, 어떤 남자가 그녀 앞에서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기 앞에서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왜 마리아는 예수님을 못 알아보았을까요? 그 이유를 한마디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몇 가지 추론은 가능합니다. 첫 번째 추론은 그녀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녀는 다른 여인들과 함께 예수님의 시신을 처리할 향품을 준비해 새벽같이 달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찾은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시신 상태로 누워있는 예수님이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시신은 오간데 없고 시신을 싸매고 있던 세마포와 수건만 덩그러니 놓여 있으니 그들은 로마 병사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것으로 생각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온통 시신의 향방에만 쏠려 있었을 겁니다. 그런 그녀들 앞

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서 계시니 당연히 그분을 예수님이라고 인정하고 믿기엔 무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인지 능력으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을 거라는 추론입니다. 사실 부활하신 후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났으나 정작 먼저 그분을 알아본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점이 이러한 추론을 가능케 합니다. 누가복음에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 대한 실망감으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¹³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이십 오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¹⁴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¹⁵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¹⁶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¹⁷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 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눅 24:13-17).

누가복음 24 장 16 절은 “저희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줄 알아보지 못하거늘”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리워져서’로 번역된 할라어 동사는 ‘에크라토운토’(ἐκρατοῦντο)인데 이 동사는 ‘크라테오’(κρατέω)의 불완전 과거 수동태입니다. 즉, 그들이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에만 그들의 눈이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받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결국 이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은 이들 책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실 어느 누구도 스스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아 보기 위해 인간 스스로의 의지나 신념, 또는 성경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공생애 내내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 공동체를 보필했던 인물입니다. 누구보다 간절히 예수님을 다시 보길 원했던 여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정작 부활하셔서 자기 앞에 나타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바리새인들을 포함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셨으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성경 지식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있었기 때문이지요. 이렇듯 인간의 의지나 노력으로 예수님을 정확히 알아볼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계시하심에 의해서만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어떠한가요? 어떤 이들은 모태에서부터 교회에 다녔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안다고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신비한 체험을 했으니 당연히 예수님을 잘 안다고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온전하게 율법적인 삶을 살고 있으니 당연히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 말합니다. 또는 하나님의 사역을 크게 확장하고 유명해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가 아니겠냐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올바르게 알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안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본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보면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중풍으로 인해 걷지도 못해 친구들에 의해 들것에 들려온 한 중풍병자, 열두 해를 혈우병을 앓던 여인, 예수님 일행에 다가서지도 못하고 멀리서 예수님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외쳤던 문둥병자, 장님 바디메오, 38년된 병자, 사마리아의 여인, 창녀, 세리,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되는대로 살자거나 죄를 많이 지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별로 죄를 짓지 않았어도 자신이 죄덩어리임을 깨닫게 될 때, 스스로 그 죄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무던히 애를 썼으나 자신의 힘으로는 그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음을 자각할 때, 예수님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 십자가가 나의 것이 되고 그 부활이 자신에게 의미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나의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나의 생각을 버리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합니다. 그 뜻을 발견할 때 그 뜻의 중심에 계시는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믿는 자들의 마음 안으로 들어 오셔서 우리를 지배하시는 것이지요.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월요일)

오늘의 본문 (요 20:11~18)

11.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푸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12.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 편에 하나는 발 편에 앉았더라
13.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14.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15.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로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 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16.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오니여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17.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18.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원문해석하기

- (11절) 마리아는 울면서 밖에서 무덤을 향하여 서 있었습니다
(*Μαρία δὲ εἰστήκει πρὸς τῷ μνημείῳ ἔξω κλαίουσα.*)
그런데 그녀가 울면서 (*ὡς οὖν ἔκλαιεν,*)
무덤 안을 들여다 보았습니다 (*παρέκυψεν εἰς τὸ μνημεῖον*)
- (12절) 그리고 그녀가 두 천사를 발견했습니다 (*καὶ θεωρεῖ δύο ἀγγέλους*)
흰옷을 입고 있는 (*ἐν λευκοῖς καθεζομένους,*)
하나는 머리를 향하여 하나는 발을 향하여 (*ἓνα πρὸς τῇ κεφαλῇ καὶ ἓνα πρὸς τοῖς ποσίν,*)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되었던 곳에서 (*ὅπου ἔκειτο τὸ σῶμα τοῦ Ἰησοῦ.*)
- (13절) 그(천사)들이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καὶ λέγουσιν αὐτῇ ἐκεῖνοι·*)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γύναι, τί κλαίεις;*)
그녀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λέγει αὐτοῖς*)
그들이 나의 주를 가져갔습니다 (*ὅτι ἤραν τὸν κύριόν μου,*)
그런데 나는 그를 어디에 두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καὶ οὐκ οἶδα ποῦ ἔθηκαν αὐτόν.*)
- (14절) 그녀가 이 말을 한 후 뒤로 몸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ταῦτα εἰπούσα ἐστράφη εἰς τὰ ὀπίσω*)
그리고 그녀가 서 계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καὶ θεωρεῖ τὸν Ἰησοῦν ἐστῶτα*)
그리고 그가 예수님임을 몰랐습니다 (*καὶ οὐκ ᾔδει ὅτι Ἰησοῦς ἐστίν.*)
- (15절) 예수님이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λέγει αὐτῇ Ἰησοῦς·*)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고 있느냐? (*γύναι, τί κλαίεις; τίνα ζητεῖς;*)
그녀가 그가 동산지기라고 생각하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ἐκεῖνη δοκοῦσα ὅτι ὁ κηπουρός ἐστιν λέγει αὐτῷ·*)

- 주여 당신이 그를 옮겼으면 (κύριε, εἰ σὺ ἐβάστασας αὐτόν,
 그가 놓인 장소를 나에게 말해 주세요 (εἰπέ μοι ποῦ ἔθηκες αὐτόν,
 그러면 내가 그를 가져 가겠습니다 (κἀγὼ αὐτὸν ἄρῶ.)
 (16절) 예수님이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λέγει αὐτῇ Ἰησοῦς·)
 마리아야 (Μαριάμ.)
 그녀가 돌아서게 되어 히브리말로 그에게 말했습니다 (στραφεῖσα ἐκείνη λέγει αὐτῷ Ἑβραϊστί·)
 랍오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임) (ραββουνι (ὃ λέγεται διδάσκαλε).)
 (17절) 예수님이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λέγει αὐτῇ Ἰησοῦς·)
 나를 만지지 말라 (μὴ μου ἅπτου),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께 올라가지 못했다 (οὐπόω γὰρ ἀναβέβηκα πρὸς τὸν πατέρα·)
 나의 형제들에게 가라 그리고 말하라 (πορεύου δὲ πρὸς τοὺς ἀδελφούς μου καὶ εἰπέ αὐτοῖς·)
 내가 나의 아버지 너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께 올라간다
 (ἀναβαίνω πρὸς τὸν πατέρα μου καὶ πατέρα ὑμῶν καὶ θεὸν μου καὶ θεὸν ὑμῶν.)
 (18절) 막달라 마리아가 갔습니다 (ἔρχεται Μαριάμ ἡ Μαγδαληνή)
 제자들에게 소식을 전하러 (ἀγγέλλουσα τοῖς μαθηταῖς)
 내가 주를 보았습니다 (ὅτι εἶώρακα τὸν κύριον),
 그가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라고] (καὶ ταῦτα εἶπεν αὐτῇ.)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15 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이 먼저 마리아에게 말을 건네십니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고 있느냐?” 마리아는 예수님을 여전히 동산지기(정원사)인 줄 알고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를 묻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를 그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여자여”라고 불렀습니다. 성경에 ‘여자여!’라고 ‘호격’이 사용된 예는 총 10 번입니다. (모두 신약에 등장하며 여덟 번을 예수님이 사용하셨음.) 그 중에 요한복음에 여섯 번이나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여자여’라고 사용한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2:4), 사마리아 여인에게 (4:21),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혀 온 여인에게 (8:10), 십자가 상에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19:26), 그리고 부활하신 후 막달라 마리아에게 (20:15)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한 번은 천사가 울고 있는 마리아를 부를 때 ‘여자여!’라고 사용했습니다 (20:13).)

예수님이 ‘여자여!’라고 부르셨을 때는 그들 모두가 곤란한 지경에 처해 있거나 절망적 상황에 있었을 때입니다. 혼인 잔치 중에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은 단순히 술이 떨어진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더 이상 혼인 잔치를 이어갈 수 없고 영망이 될 수밖에 없는 아주 곤란한 상황에서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자기 어머니를 향해 ‘여자여!’라고 부릅니다. 예배할 곳을 묻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저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4:21)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이 땅의 문제, 각자의 종교적인 입장, 인간들이 드리는 예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의 생각과 관점을 바꾸기 위해 그에게 ‘여자여!’라고 부르셨습니다. ‘사마리아’라는 말 자체가 당시에는 아주 비천한 단어였습니다. 절대적 소외, 비난, 비인간적 대우 등을 내포하고 있는 단어였던 것이지요. 그들과 예

배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녀를 ‘여자여!’라고 부르며 예배를 회복 시키십니다.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은 그보다 더 절망적입니다. 돌에 맞는 두려움보다는 수치심에 더 죽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하나 둘 그녀 곁을 떠나자 예수님이 그녀를 불렀습니다. “여자여!” 이 말에 그녀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어느새 그녀의 마음은 절망, 두려움, 수치심에서 벗어나 세상이 줄 수 없는 지극한 평안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십자가 상에서 돌아가시기 직전 그 밑에서 육신의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며 슬퍼하고 있는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 예수님은 입을 떼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자신이 낳은 육신의 아들인 예수님이 이제 세상의 모든 짐을 지고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어야 할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마리아를 보며 하신 그 말의 무게는 그 당시 그 자리에서 그 말을 들은 어느 누구보다, 또한 지금 성경을 통해 그 현장을 간접 체험하는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보다 훨씬 더 무거웠을 것입니다.

“여자여!”라는 말은 단순히 몇몇 여인들만 들은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교회를 예수님의 신부로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 각 개개인이 예수님의 신부이고,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의 신부라면 어쩌면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그렇게 부르실 겁니다. 우리의 혼인 잔치가 더 이상 계속되지 못하고 엉망이 될 것 같을 때, 진정한 예배를 간절히 원하나 그런 예배가 드러지지 않을 때, 죄로 인해 두려움과 수치심에 떨고 있을 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힘들어 하며 심지어 죽어 가는 모습을 곁에서 무력하게 바라만 보아야 할 때,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만약 그런 음성을 듣는다면 당신의 마음은 어떨까요? 당신은 그 음성을 들은 적이 있나요? 있다면 그 경험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15 절 하반절을 읽으십시오.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여쭙습니다. 만약, 당신이 예수님의 시신을 옮겼다면 그 장소를 말해주면 자신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겠다고 말합니다.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 앞에서서 예수님의 시신을 찾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지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 보지 못하고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그의 시신을 찾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답답해 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 보지 못할 수 있느냐? 이 얼마나 믿음이 없는 행동인가? 등등. 왜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는지에 대해서는 15 절에서 설명했으므로 생략하고 다만 우리들이 스스로에게 던져보아야 할 질문들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성도들 중에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아직 자신의 죄 문제로 힘들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를 스스로 어떻게든 씻어 보고 갚아 보려고 열심을 냅니다. 그러면서 늘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자유니 평화니 하는 말은 그저 빈 말뿐이고 실제로는 마음이 늘 불편합니다. 겉으로는 태연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두려움이 가시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말뿐입니다. 실제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믿음은 그 자체로서 능력이 있기에 실제로 믿음은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고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를 줍니다. 상황과 무관하게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누누이 이야기를 하지만 믿음은 우리의 결심이나 신념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이고 예수님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매일매일 종교적 노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선한 행동을 해야만 한다는 열정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지요. 이러

한 사람들은 늘 교회에서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로 신앙의 척도를 가늠합니다. 사역 중심으로 신앙의 수준을 판단하지요. 자신이 열심을 내는 것은 물론 교회 사역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비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왜 하나님의 일은 하지 않느냐고 책망하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의를 쌓아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이것 역시도 진정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오해한데서 이러한 신앙관이 형성된 것입니다.

당신은 어떠한가요? 정말 예수님으로 인해 죄로부터 온전히 해방되었나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 안에 거하시나요?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을 가늠하고 계시나요? 각자 자신의 신앙을 돌아 보기 바랍니다.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내가 주를 보았다 (화요일)

오늘의 본문 (요 20:11~18)

11.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푸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12.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 편에 하나는 발 편에 앉았다
13.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14.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15.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로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 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16.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오니여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17.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18.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원문해석하기

- (11절) 마리아는 울면서 밖에서 무덤을 향하여 서 있었습니다
(Μαρία δὲ εἰστήκει πρὸς τῷ μνημείῳ ἔζω κλαίουσα.)
그런데 그녀가 울면서 (ὡς οὖν ἔκλαιεν,
무덤 안을 들여다 보았습니다 (παρέκυψεν εἰς τὸ μνημεῖον)
- (12절) 그리고 그녀가 두 천사를 발견했습니다 (καὶ θεωρεῖ δύο ἀγγέλους)
흰옷을 입고 있는 (ἐν λευκοῖς καθεζομένους.)
하나는 머리를 향하여 하나는 발을 향하여 (ἓνα πρὸς τῇ κεφαλῇ καὶ ἓνα πρὸς τοῖς ποσίν.)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되었던 곳에서 (ὅπου ἔκειτο τὸ σῶμα τοῦ Ἰησοῦ.)
- (13절) 그(천사)들이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καὶ λέγουσιν αὐτῇ ἐκεῖνοι·)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γύναι, τί κλαίεις;)
그녀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λέγει αὐτοῖς)
그들이 나의 주를 가져갔습니다 (ὅτι ἤραν τὸν κύριόν μου.)
그런데 나는 그를 어디에 두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καὶ οὐκ οἶδα ποῦ ἔθηκαν αὐτόν.)
- (14절) 그녀가 이 말을 한 후 뒤로 몸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ταῦτα εἰπούσα ἐστράφη εἰς τὰ ὀπίσω)
그리고 그녀가 서 계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καὶ θεωρεῖ τὸν Ἰησοῦν ἐστῶτα)
그리고 그가 예수님임을 몰랐습니다 (καὶ οὐκ ᾔδει ὅτι Ἰησοῦς ἐστίν.)
- (15절) 예수님이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λέγει αὐτῇ Ἰησοῦς·)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고 있느냐? (γύναι, τί κλαίεις; τίνα ζητεῖς;)
그녀가 그가 동산지기라고 생각하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ἐκεῖνη δοκοῦσα ὅτι ὁ κηπουρός ἐστιν λέγει αὐτῷ·)

- 주여 당신이 그를 옮겼으면 (κύριε, εἰ σὺ ἐβάστασας αὐτόν,
 그가 놓인 장소를 나에게 말해 주세요 (εἰπέ μοι ποῦ ἔθηκες αὐτόν,
 그러면 내가 그를 가져 가겠습니다 (κἀγὼ αὐτὸν ἄρῶ.)
 (16절) 예수님이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λέγει αὐτῇ Ἰησοῦς·)
 마리아야 (Μαριάμ.)
 그녀가 돌아서게 되어 히브리말로 그에게 말했습니다 (στραφεῖσα ἐκείνη λέγει αὐτῷ Ἑβραϊστί·)
 랍오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임) (ραββουνι (ὃ λέγεται διδάσκαλε).)
 (17절) 예수님이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λέγει αὐτῇ Ἰησοῦς·)
 나를 만지지 말라 (μὴ μου ἅπτου),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께 올라가지 못했다 (οὐπῶ γὰρ ἀναβέβηκα πρὸς τὸν πατέρα·)
 나의 형제들에게 가라 그리고 말하라 (πορεύου δὲ πρὸς τοὺς ἀδελφούς μου καὶ εἰπέ αὐτοῖς·)
 내가 나의 아버지 너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께 올라간다
 (ἀναβαίνω πρὸς τὸν πατέρα μου καὶ πατέρα ὑμῶν καὶ θεὸν μου καὶ θεὸν ὑμῶν.)
 (18절) 막달라 마리아가 갔습니다 (ἔρχεται Μαριάμ ἡ Μαγδαληνὴ)
 제자들에게 소식을 전하러 (ἀγγέλλουσα τοῖς μαθηταῖς)
 내가 주를 보았습니다 (ὅτι εἶώρακα τὸν κύριον),
 그가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라고] (καὶ ταῦτα εἶπεν αὐτῇ.)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16 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의 시신을 찾는데 온통 정신을 집중하고 있는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말을 들은 마리아가 돌아서며 ‘랍오니’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의 이름을 불렀고, 마리아는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임을 금방 알아 차렸습니다. 예수님을 뵈는 순간 처다보면서도 그를 동산지기 (정원사) 정도로만 알았던 그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한마디가 그녀의 눈과 귀를 열었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야”하고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예수님의 그 소리는 그녀의 눈을 가리고 있던 방해물을 제거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시는 장면은 요한복음 10 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한 목자를 떠올리게 합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 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 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요 10:3-5).

예수님은 마리아의 이름을 불렀고, 그녀는 갇혀 있던 자신만의 세계에서 벗어나 비로소 부활의 영광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인식하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내내 울면서 예수님의 시신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끝내는 예수님의 시신을 찾는데 실패합니다. 시신은 존재하지 않을 뿐 아니라 존재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 사실을 모른 채 절망 가운데 있던 그녀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자 슬픔과 절망은 이내 기쁨과 놀라움으로 바뀝니다.

우리들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정해 놓고 그것에 미달하면 너무 힘들어 합니다. 건강을 원하는 사람은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서 빨리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 지옥같은 현실로부터 벗어나는데만 모든 것을 집중합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숨통이라도 트었으면 하는 생각에 온통 돈걱정으로 가득합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기보다는 대개의 경우 그대로거나 오히려 더 악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생각지도 않게 찾아오는 평안을 누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원을 알 수 없는 기쁨이 자기를 지배하는 것을 경험하지요. 밖에서 보면 곧 죽을 것 같은데도 그런 현실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고난을 축복으로 인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현실은 더 힘들고 어렵게 짓눌러 오지만,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시련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현실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어떠한 노력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자각하라는 거지요.

상황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동산지기라고 생각했던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자각이 그녀를 변화시켰습니다. 새로운 것을 본 것이 아니라 보고 있던 대상을 올바르게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신앙은 진리를 진리로 올바르게 깨닫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때 비로소 죽은 시신이 된 예수님이 아닌 부활의 몸으로 내게 오셔서 내 이름을 부르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지요.

17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자신을 만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 아버지 하나님께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그리고 형제들에게 가서 이런 말을 전하라고 부탁하십니다.

“내가 나의 아버지 너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께 올라간다.”

왜 예수님은 자신을 만지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아버지께 올라가는 것과 예수님을 만지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요? 사실 예수님은 나중에 만난 도마에게는 그와는 반대로 자신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자신을 만지지 말라고 하신 것은 그저 만져 보는 것과는 다른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명령한 “나를 만지지 말라” (μή μου ἅπτου, 메 모우 합토우)라는 문장에서 ‘합토우’는 동사 ‘합토’ (ἅπτω)의 명령형입니다. 합토는 몸을 터치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강하게 붙잡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추측건대 마리아가 다시는 예수님을 보내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꼭 붙잡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은 그것을 간파하고 마리아에게 그러지 말라고 명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같은 추론은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 아버지께 올라간다고 말씀하신데서도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하나님께 올라가신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너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이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졌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한 개인의 부활이 아니라 믿는 모든 사람들의 부활임을 만천하에 천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흠인 몸을 이 땅에 버리고 가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했을 경우 어떤 문제가 야기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어떻

계 새 생명을 믿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보여주신 겁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해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¹²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¹³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¹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¹⁵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¹⁶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¹⁷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¹⁸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¹⁹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생명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고전 15:12-19).

예수님이 부활을 보여주신 것은 우리들도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게 되리라는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부활에 기초하지 않은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부활이 있기에 현재의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너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라 부르신 것도 바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할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18절을 읽으십시오.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이 말은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전하라고 하신 말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대로 전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전합니다.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데 우리는 과연 무엇을 전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 있나요? 혹시라도 교회를 전하고, 담임 목사님을 전하고, 프로그램을 전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은 내가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뿐입니다. 우리는 그분 외에는 전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말이지요.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제자들 앞에 나타내신 부활하신 예수님 (수요일)

오늘의 본문 (요 20:19~25)

19. 이 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찌어다
20.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21.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22.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23. 너희가 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24. 열 두 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25.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원문해석하기

- (19절) 그런데 안식 후 첫날 저녁 때가 되었을 때 (Οὔσης οὖν ὀψίας τῆς ἡμέρας ἐκείνης τῆς μιᾶς σαββάτου)
그리고 제자들이 유대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문을 닫고 있을 때
(καὶ τῶν θυρῶν κεκλεισμένων ὅπου ἦσαν οἱ μαθηταὶ διὰ τὸν φόβον τῶν Ἰουδαίων,
예수께서 들어 오셔서 그 가운데 서셨습니다 (ἦλθεν ὁ Ἰησοῦς καὶ ἔστη εἰς τὸ μέσον)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καὶ λέγει αὐτοῖς)
평화가 너희들에게 (εἰρήνη ὑμῖν).)
- (20절)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후 (καὶ τοῦτο εἰπὼν)
그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ἔδειξεν τὰς χεῖρας καὶ τὴν πλευρὰν αὐτοῖς)
그러자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ἔχάρησαν οὖν οἱ μαθηταὶ ἰδόντες τὸν κύριον.)
- (21절)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εἶπεν οὖν αὐτοῖς [ὁ Ἰησοῦς] πάλιν·)
평화가 너희들에게 (εἰρήνη ὑμῖν·)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같이 (καθὼς ἀπέστειλέν με ὁ πατήρ·)
나 역시 너희들을 보낸다 (καὶ γὼ πέμπω ὑμῖς·)
- (22절) 이 말씀을 하신 후 (καὶ τοῦτο εἰπὼν)
그가 숨을 내쉬었습니다 (ἐνεφύσησεν)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καὶ λέγει αὐτοῖς·)
성령을 받으라 (λάβετε πνεῦμα ἅγιον·)
- (23절) 너희들이 누구의 죄를 용서하면 (ἂν τινων ἀρῆτε τὰς ἁμαρτίας)
그들에게 용서될 것이요 (ἀφείωνται αὐτοῖς·)
너희들이 [누구의 죄를] 잡고 있으면 (ἂν τινων κρατῆτε)
잡혀 있을 것이다 (κεκράτηνται·)

- (24절) 열 둘 중의 하나인 도마는 (Θωμᾶς δὲ εἷς ἐκ τῶν δώδεκα,
 디두모라 불려지는 사람인데 (ὁ λεγόμενος Δίδυμος),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οὐκ ἦν μετ' αὐτῶν)
 예수님이 오셨을 때 (ὅτε ἦλθεν Ἰησοῦς.)
- (25절)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ἔλεγον οὖν αὐτῷ οἱ ἄλλοι μαθηταί·)
 우리가 주를 보았다 (ἐωράκαμεν τὸν κύριον.)
 그러나 그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ὁ δὲ εἶπεν αὐτοῖς·)
 만약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지 않는다면 (ἐὰν μὴ ἴδω ἐν ταῖς χερσὶν αὐτοῦ τὸν τύπον τῶν ἰγλῶν)
 그리고 그 못자국 안으로 손가락을 넣어 보지 않고는 (καὶ βάλω τὸν δάκτυλόν μου εἰς τὸν τύπον τῶν ἰγλῶν)
 그리고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καὶ βάλω μου τὴν χεῖρα εἰς τὴν πλευρὰν αὐτοῦ,)
 나는 절대 믿지 않는다 (οὐ μὴ πιστεύσω.)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19 절을 읽으십시오. 드디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 오셨습니다.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저녁 때였습니다. 예수님이 찾아 오셨을 때 제자들은 유대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하신 첫 마디는 “평화가 너희들에게”였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은 때는 안식 후 첫날 저녁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이미 부활하셔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자신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다시 살았나셨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⁹ 무덤에서 돌아가이 모든 것을 열 한 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고하니 ¹⁰(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안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저희와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고하니라) ¹¹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뵈어 믿지 아니하나”(눅 24:9-11).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분명히 제자들에게 알렸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녀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보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수차례에 걸쳐 제자들에게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삼일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고,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심으로 죽은 사람들의 부활이 가능함을 이미 보여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서를 기록한 모든 기록자들이 제자들조차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고 기록한 것은 단지 그들의 믿음없음을 책망하려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들이 믿지 못한 것은 오히려 당연한 것입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스스로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게다가 죽음을 이기고 살아날 분이라면 애초부터 그렇게 허무하게 죽을 필요도 없었을 거라 생각될 것입니다. 또는 남들 목숨은 살려낼 수 있다해도 죽은 자가 스스로를 살려내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

지요. 이처럼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 들이지 못할 이유는 많습니다. 사도 요한도 그럴 수밖에 없었음을 인정합니다. 그조차도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떨었던 사람들 중의 하나였으니까요. 하지만 제자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기록은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더 확실하게 증거해 줍니다. 그렇게 두려움에 떨던 그들이 오순절 성령님이 오신 후 얼마나 담대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는지를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수십 년이 흐른 뒤 그 부활을 전한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고 심지어 죽음까지 당했던 그리스도인들에 관한 기록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말처럼 그리 쉽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기도 합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 오셨습니다.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개선장군처럼 보란듯이 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들어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조용히 그 자리에 서셨습니다. 그리고는 떨고 있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너희들에게”(εἰρήνη ὑμῖν, 에이레네 후민)

20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은 말로만 자신의 부활을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못 자국난 손과 창 자국난 옆구리를 확인하는 순간 제자들의 두려움은 기쁨으로 변합니다. 이들의 기쁨은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사실을 확증한데서 비롯된 기쁨입니다. 또한 그들이 더 이상 유대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 즉 두려움으로부터의 해방에서 비롯된 기쁨이기도 합니다. 이 글을 읽는 우리들에게는 아마도 부활에 대한 소망에서 오는 기쁨일 것입니다. 부활은 단순히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셨다는 사실 이상의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존립 기반이 바로 이 부활에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다시 살기 위해 죽음을 맛보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죄를 없애고 하나님과 인간들 간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을 통해 온전해진 사람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시기 위해 부활하신 것이며 이를 통해 믿는 우리들에게 산소망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 어찌 기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고 그의 부활은 우리의 의를 위함입니다. 부활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의 첫 번째 편지에서 온전한 사랑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요일 4:18).

온전한 사랑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는 데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시기 위한 부활이 그 정점인 것입니다. 그 부활이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우리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세상의 핍박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것은 부활을 통해 온전해진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21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은 재차 제자들에게 “평화가 너희들에게”라고 말씀하신 후 재자들을 파송하는 듯한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같이 나 역시 너희들을 보낸다.”

어디로 보내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정황상 세상으로 보낸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는 지상 명령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원래 사도라는 의미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열두 사도는 예수님의 공생애 초기에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3년여의 공생애 동안 그들에게 복음의 의미를 보여주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 그들은 복음에 대해 어떤 것도 온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성경을 유대 지도자들과는 전혀 다른 시각으로 가르치신다는 사실이 복음의 전부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극단적으로 복음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을 정도이니 까요. 사실 사도들의 편지를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이적을 많이 행하셨는지, 어떤 가르침을 가르치셨는지에 대한 설명은 거의 없습니다. 오직 그의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만 상세하게 가르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이적을 폄하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그 모든 것이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시기 위해서이며 그 하늘 나라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부활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받아야만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는 것은 이제 완성된 하늘 나라, 그 복음을 전하라는 의미로 보아야 합니다.

당신은 어떠합니까? 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라면 지금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명령이 나에게 내린 명령으로 들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 역시 너희들을 보낸다.”

‘너희들’ 가운데 당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세상을 향해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 만들어 내신 그 생명을 외쳐야 할 것입니다. 손에 복음을 들고 말이지요.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성령을 받으라 (목요일)

오늘의 본문 (요 20:19~25)

19. 이 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찌어다
20.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21.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22.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23. 너희가 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24. 열 두 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25.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원문해석하기

- (19절) 그런데 안식 후 첫날 저녁 때가 되었을 때 (Οὔσης οὖν ὀψίας τῆ ἡμέρας ἐκείνῃ τῆ μιᾶ σαββάτου)
그리고 제자들이 유대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문을 닫고 있을 때
(καὶ τῶν θυρῶν κεκλεισμένων ὅπου ἦσαν οἱ μαθηταὶ διὰ τὸν φόβον τῶν Ἰουδαίων,)
예수께서 들어 오셔서 그 가운데 서셨습니다 (ἦλθεν ὁ Ἰησοῦς καὶ ἔστη εἰς τὸ μέσον)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καὶ λέγει αὐτοῖς·)
평화가 너희들에게 (εἰρήνη ὑμῖν·)
- (20절)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후 (καὶ τοῦτο εἰπὼν)
그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ἔδειξεν τὰς χεῖρας καὶ τὴν πλευρὰν αὐτοῖς.)
그러자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ἔχάρησαν οὖν οἱ μαθηταὶ ἰδόντες τὸν κύριον.)
- (21절)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εἶπεν οὖν αὐτοῖς [ὁ Ἰησοῦς] πάλιν·)
평화가 너희들에게 (εἰρήνη ὑμῖν·)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같이 (καθὼς ἀπέστειλέν με ὁ πατήρ,)
나 역시 너희들을 보낸다 (καὶ γὰρ πέμπω ὑμῖς.)
- (22절) 이 말씀을 하신 후 (καὶ τοῦτο εἰπὼν)
그가 숨을 내쉬었습니다 (ἐνεφύσησεν)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καὶ λέγει αὐτοῖς·)
성령을 받으라 (λάβετε πνεῦμα ἅγιον·)
- (23절) 너희들이 누구의 죄를 용서하면 (ἂν τινῶν ἀρῆτε τὰς ἁμαρτίας)
그들에게 용서될 것이요 (ἀφείωνται αὐτοῖς,)
너희들이 [누구의 죄를] 잡고 있으면 (ἂν τινῶν κρατῆτε)
잡혀 있을 것이다 (κεκράτηνται.)

- (24절) 열 둘 중의 하나인 도마는 (Θωμᾶς δὲ εἷς ἐκ τῶν δώδεκα,
 디두모라 불려지는 사람인데 (ὁ λεγόμενος Δίδυμος),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습시다 (οὐκ ἦν μετ' αὐτῶν)
 예수님이 오셨을 때 (ὅτε ἦλθεν Ἰησοῦς.)
- (25절)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ἔλεγον οὖν αὐτῷ οἱ ἄλλοι μαθηταί·)
 우리가 주를 보았다 (ἐωράκαμεν τὸν κύριον.)
 그러나 그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ὁ δὲ εἶπεν αὐτοῖς·)
 만약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지 않는다면 (ἐὰν μὴ ἴδω ἐν ταῖς χερσὶν αὐτοῦ τὸν τύπον τῶν ἰγλῶν)
 그리고 그 못자국 안으로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καὶ βάλω τὸν δάκτυλόν μου εἰς τὸν τύπον τῶν ἰγλῶν)
 그리고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καὶ βάλω μου τὴν χεῖρα εἰς τὴν πλευρὰν αὐτοῦ),
 나는 절대 믿지 않는다 (οὐ μὴ πιστεύσω.)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22-23 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의 파송을 선포하신 후 숨을 내쉬고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너희들이 누구의 죄를 용서하면 그들에게 용서될 것이요. 너희들이 [누구의 죄를] 잡고 있으면 잡혀 있을 것이다.”

먼저 예수님은 숨을 내쉬고 그들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한글은 물론 영어 번역에 이르기까지 성경은 하나같이 “그들을 향하사” (on them) ‘숨을 내쉬었다’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성령을 받게 하는 상징적 제스처를 취하신 것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숨을 내쉬는 그 행위에 초점을 맞추어 수많은 억측과 해석이 난무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올바르게 직역하면 “그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ἐνεπύσησεν καὶ λέγει αὐτοῖς, 에네푸세센 카이 레게이 아우토이스)”입니다. 즉, 예수님이 숨을 내쉬는 직후에 말씀을 하신 것이지 제자들을 향해 ‘후~~~~’하고 숨을 내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만약 일반적인 해석에 따라 ‘그들을 향해 숨을 내쉬었다’고 해석한다면 예수님이 내쉬는 ‘숨’과 ‘성령’간에는 어떤 연관성이 있다는 추정이 가능해집니다. 즉, 좀더 확대해서 해석하면 예수님의 ‘숨’은 곧 ‘성령’으로 볼 수 있는거지요. 이 광경은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빚은 후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는 모습과 흡사합니다 (창 2:7 참조). 하지만 이렇게 해석하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는 약간 모순이 있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하고 계신 것은 굳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기 위한 행위라기보다는 오순절 성령 사건과 그 이후의 일을 미리 계시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만약 예수님이 숨을 내쉬는 것이 성령을 받는 것과는 무관한 행동이라면 왜 굳이 예수님이 숨을 내쉬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전히 인성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지속적으로 예수님의 인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부활 전 예수님의 몸이나 부활 후 예수님의 몸 둘 다 모두 완전한 인간의 몸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그다음 말씀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너희들이누구의 죄를 용서하면 그들에게 용서될 것이요. 너희들이 [누구의 죄를] 잡고 있으면 잡혀 있을 것이다.”

먼저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라!(λάβετε πνεῦμα ἅγιον)”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명령이란 명령자의 의지를 피명령자에게 두는 것입니다. 이 때 명령을 듣는 자의 의지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명령이 떨어지면 무조건 명령자의 의지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명령에는 명령하는 주체의 뜻과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단순히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는 수준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기에 명령은 반드시 성취되는 확정적 결과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거나 때론 무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이 무시될 수 있고, 무시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무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무시하는 사람들은 명령을 받은 적이 없거나 명령과 무관한 버림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대적자이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지요.

그렇기에 ‘성령을 받으라’라는 명령은 제자들뿐 아니라 모든 믿는자들에게 성령을 나누어 주시겠다는 예수님의 의지 표명이자 제자들로 하여금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기본을 갖추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명령은 오순절 성령 강림시에 성취되었고, 오늘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성취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하시면서 이어서 죄의 용서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마치 죄를 용서하는 권리가 제자들에게 있는 것처럼 들입니다. 제자들이 죄를 용서하면 용서될 것이고 제자들이 그죄를 붙잡고 있으면 그대로 있게 될 것처럼 말이지요.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은 이번 한 번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마 16:18-19).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 ‘묶는 것’과 ‘풀어 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율법에 의해 정죄되느냐 아니면 무죄 방면되느냐를 나타내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매는 것’과 ‘푸는 것’으로 표현하신 겁니다. 지금 요한복음에서 ‘용서하다’라고 해석한 헬라이어 단어 ‘아피에미’(ἀφίημι)는 ‘허용하다.’ ‘내어 보내다.’ ‘풀어주다’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죄의 용서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도 죄인들이기 때문에 누구의 죄를 용서할 권한이 없습니다. 기독교에서 죄의 문제는 철저히 하나님과 인간사이의 문제입니다. 인간의 대적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진 것이 죄입니다. 이 죄가 사라지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죄 용서 선포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타인이 그죄를 용서할 수도 없고, 죄인 스스로 그 용서를 선포하는 것도 아닙니다. 소위 셀프 용서라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죄 용서

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진 것이지 인간들 사이에서도 그것이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사람들 사이에 피해자와 가해자가 존재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죄 용서와 무관하게 인간들끼리 법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하나님 뒤로 숨는다고 그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같은 사실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 봅시다. 헬라어 동사 ‘아피에미’를 ‘놓아 주다’라고 해석을 하면, ‘상대방의 죄를 놓아주면 그들이 놓이게 될 것이고, 붙잡고 있으면 그들이 붙잡혀 있을 것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죄는 죄 지은 자가 갚는 것이 아닙니다. 죄 지은 자는 철저하게 피동적입니다. 그가 죄를 용서 받기 위해 힘써 노력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가 죄인을 놓아줄 수도 있고 붙잡아 둘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 용서의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믿는 자의 죄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 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 죄사함의 소식을 선포하는 것뿐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힘들어 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물과 피가 의미하는 바를 선포하는 것이 죄 용서의 과정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들의 사명이지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수행하며 살고 있나요?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도마의 불신(?) (금요일)

오늘의 본문 (요 20:19~25)

19. 이 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찌어다
20.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21.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22.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23. 너희가 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24. 열 두 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25.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원문해석하기

- (19절) 그런데 안식 후 첫날 저녁 때가 되었을 때 (Οὔσης οὖν ὀψίας τῆς ἡμέρας ἐκείνης τῆς μιᾶς σαββάτου) 그리고 제자들이 유대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문을 닫고 있을 때 (καὶ τῶν θυρῶν κεκλεισμένων ὅπου ἦσαν οἱ μαθηταὶ διὰ τὸν φόβον τῶν Ἰουδαίων,) 예수께서 들어 오셔서 그 가운데 서셨습니다 (ἦλθεν ὁ Ἰησοῦς καὶ ἔστη εἰς τὸ μέσον)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καὶ λέγει αὐτοῖς) 평화가 너희들에게 (εἰρήνη ὑμῖν.)
- (20절)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후 (καὶ τοῦτο εἰπὼν) 그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ἔδειξεν τὰς χεῖρας καὶ τὴν πλευρὰν αὐτοῖς) 그러자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ἔχάρησαν οὖν οἱ μαθηταὶ ἰδόντες τὸν κύριον.)
- (21절)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εἶπεν οὖν αὐτοῖς [ὁ Ἰησοῦς] πάλιν·) 평화가 너희들에게 (εἰρήνη ὑμῖν·)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같이 (καθὼς ἀπέστειλέν με ὁ πατήρ,) 나 역시 너희들을 보낸다 (καὶ γὰρ πέμπω ὑμῖς.)
- (22절) 이 말씀을 하신 후 (καὶ τοῦτο εἰπὼν) 그가 숨을 내쉬었습니다 (ἐνεφύσησεν)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καὶ λέγει αὐτοῖς·) 성령을 받으라 (λάβετε πνεῦμα ἅγιον·)
- (23절) 너희들이 누구의 죄를 용서하면 (ἂν τινῶν ἀρῆτε τὰς ἁμαρτίας) 그들에게 용서될 것이요 (ἀφείωνται αὐτοῖς,) 너희들이 [누구의 죄를] 잡고 있으면 (ἂν τινῶν κρατῆτε) 잡혀 있을 것이다 (κεκράτηνται.)

- (24절) 열 둘 중의 하나인 도마는 (Θωμάς δὲ εἷς ἐκ τῶν δώδεκα,
 디두모라 불려지는 사람인데 (ὁ λεγόμενος Δίδυμος),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οὐκ ἦν μετ' αὐτῶν)
 예수님이 오셨을 때 (ὅτε ἦλθεν Ἰησοῦς.)
- (25절)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ἔλεγον οὖν αὐτῷ οἱ ἄλλοι μαθηταί·)
 우리가 주를 보았다 (ἐωράκαμεν τὸν κύριον.)
 그러나 그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ὁ δὲ εἶπεν αὐτοῖς·)
 만약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지 않는다면 (ἐὰν μὴ ἴδω ἐν ταῖς χερσὶν αὐτοῦ τὸν τύπον τῶν ἰγλῶν)
 그리고 그 못자국 안으로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καὶ βάλω τὸν δάκτυλόν μου εἰς τὸν τύπον τῶν ἰγλῶν)
 그리고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καὶ βάλω μου τὴν χεῖρα εἰς τὴν πλευρὰν αὐτοῦ),
 나는 절대 믿지 않는다 (οὐ μὴ πιστεύσω.)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24-25 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마침 도마는 그자리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그가 제자들과 함께 했을 때 제자들이 도마에게 자신들이 예수님을 만난 사실을 이야기 합니다. 도마는 그들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은 손에 못자국을 보고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 보지 않고는 절대로 믿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읽을 때 거의 자동적으로 ‘의심많은 도마’라는 말을 떠올립니다. 그냥 낙인을 찍어버린 거지요. 요즘도 도마라 하면 무조건 의심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는 것은 바로 요한복음의 이 기록을 많은 설교자들이 그렇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한이 이 사실을 기록한 것은 도마의 믿음없음을 강조하려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의 믿음의 실체를 확증해 주기 위함입니다. 믿음은 맹목적인 신념이 아닙니다.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인 것을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지요. 믿음은 논리적이고 실제적이며 구체적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아니 더 정확히 표현하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믿기 위해 자신의 의지로 모든 생각을 내려 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세계관을 송두리째 바꾸어 믿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십니다. 그 과정을 거친 사람들에게 비로소 믿음이라는 것이 찾아옵니다. 요한은 그것을 설명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확인하고 믿기는 다른 열 명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 오셨을 때 그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 주시자 그들이 주이신 줄 알았고 그 때문에 기뻐했습니다(요 20:20 참조). 그들에게 예수님이 먼저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신 겁니다. 그때 도마는 그자리에 없었으므로 그 손과 그 옆구리를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없었을 뿐입니다.

요한은 도마를 지칭할 때 ‘디두모라고 불리우는 도마’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표현은 비단 여기서 뿐 만이 아닙니다. 11 장 16 절에서도 동일한 표현을 썼습니다. 도마는 아람어 ‘토만’이라는 말을 그대로 헬라어로 옮긴 것으로 토만은 ‘쌍둥이’라는 의미입니다. 헬라어로 쌍둥이는 ‘디두모’입니다. 그러니까 도마는 헬라어 디두모와 아람어 토만의 헬라어 표기 모두를 써서 그의 이름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두 단어 모두 쌍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마라는 이름은 다른 공관복음에는 열두 사도를 나열할 때 각각 한 번씩 등장합니다. 사도 행전에도 열두 사도의 이름을 말할 때만 언급했을 뿐입니다. 그

런데 요한복음에는 도마의 이름이 무려 일곱 번이나 등장합니다. 언급된 횟수로만 볼 때 도마는 요한복음의 중요한 내용인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간’임을 변증하는 매우 중요한 인물임에 틀림없습니다. 도마의 그 실증적 사고를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맹목적이고 터무니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질적 체험을 통해 확인된 역사적 사실임을 강조하려는 겁니다.

한편,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등장하신 이 때에 왜 하필이면 도마만 빠진 걸까요? 약간 달리 질문해 보면, 하필이면 왜 예수님은 도마가 없는 그 시간에 제자들을 찾아 오셨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첫 번째 목격한 제자들의 그룹에서 왜 도마만 제외시키셨을까요? 이러한 질문을 던져야 요한복음이 좀더 구체적으로 이해됩니다. 당시 요한 공동체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매우 드물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제자들이 전한 그 말만 믿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인 거지요. 오늘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들도 당연히 그 일의 목격자가 아니라 증언을 듣고 믿게 된 사람들이지요. 그렇기에 그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도마의 이야기는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하겠습니다.

그것은 믿음은 합리적 의심을 통해서 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이후 이 땅에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그 교회를 이룬 주인공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했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선포하였으며 그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온천하를 다니며 전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우리들의 눈에는 한번 설교에 수천 명이 회심하고 돌아온 표면적인 것만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자신들의 구원 문제로 고민을 해왔던 사람들이고 자신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절망의 늪에서 ‘어찌할꼬’하면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찾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만 소망이 있음을 알게 하신 것이지요. 그것을 ‘믿음’이라 부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모태에서부터 교회에 다녔기 때문에, 또는 어떤 신비한 체험을 했기 때문에, 또는 교회 다니면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 같은 막연한 기대감에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념,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을 통해 관철하려 애를 씁니다. 그러한 종교적 노력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신실하고 믿음 좋은 것처럼 비쳐집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삶 속에서 철저한 실패와 좌절,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절망감, 그 벼랑 끝에 섰을 때 비로소 보이는 것이지요. 믿음은 삶 속에서 체험되는 것이지 머릿속으로 상상하여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25 절에서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가 주를 보았다”라고 말하자 도마는 그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한 사람만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열 명 또는 그 이상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도마는 그 말이 전혀 믿어지지 않았습니니다. 그런 태도는 사실 당연한 것입니다. 도마는 다수의 주장에 맹목적으로 동조하지 않았습니니다. 그는 자신의 합리적 의심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약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 못자국안으로 손가락을 넣어 보지 않고는 그리고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절대 믿지 않는다.”

확인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신도 주를 보고 주의 부활 여부를 확인해야겠다는 거지요. 지금 도마의 말을 통해 요한이 계속해서 사용하는 단어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못에 뜯

린 손과 창에 찢린 옆구리라는 단어 말입니다. 이 단어는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는 키워드가 되었습니다. 도마는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알아보지 못한 사람들이 누가복음에 등장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제자’로 알려진 사람들과 예수님의 대화를 살펴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⁴³ 그 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이십 오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⁴⁴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⁴⁵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⁴⁶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 (중략)...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²²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²³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으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²⁴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의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눅 24:13-24).

이들에게도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전해졌고,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도마도 동일합니다. 이런 합리적 의심은 좀더 많은 증거를 제시하게 만듭니다. 구체적인 실증이 제시되지 않으면 안되는 거지요. 우리들의 믿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이라는 구체적인 상황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 움직인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에 비례해서 커지는 겁니다. 믿음은 체험을 통해 확증되고 확증된 것들이 축적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그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토요일)

오늘의 본문 (요 20:26~31)

26.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27.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28.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니이다
29.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30.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31.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원문해석하기

- (26절) 팔일 후에 (Καὶ μεθ' ἡμέρας ὀκτῶ)
그가 그의 제자들과 다시 함께 했습니다 (πάλιν ἦσαν ἔσω οἱ μαθηταὶ αὐτοῦ)
그리고 도마도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καὶ Θωμᾶς μετ' αὐτῶν.)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ἔρχεται ὁ Ἰησοῦς)
문이 닫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τῶν θυρῶν κεκλεισμένων)
그리고 그가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시길 (καὶ ἔστη εἰς τὸ μέσον καὶ εἶπεν)
평화가 너희들에게 (εἰρήνη ὑμῖν.)
- (27절) 그때 그가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εἶπα λέγει τῷ Θωμᾶ.)
너의 손가락을 이리로 내밀어 나의 손을 보아라 (φέρε τὸν δάκτυλόν σου ὧδε καὶ ἴδε τὰς χεῖράς μου)
너의 손을 내밀어 너의 옆구리를 만져 보아라 (καὶ φέρε τὴν χεῖρά σου καὶ βάλε εἰς τὴν πλευράν μου.)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καὶ μὴ γίνου ἄπιστος ἀλλὰ πιστός.)
-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그에게 말했습니다 (ἀπεκρίθη Θωμᾶς καὶ εἶπεν αὐτῷ.)
나의 주 나의 하나님 (ὁ κύριός μου καὶ ὁ θεός μου.)
- (29절)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λέγει αὐτῷ ὁ Ἰησοῦς.)
네가 나를 보기 때문에 믿느냐? (ὅτι ἐώρακάς με πεπίστευκας.)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μακάριοι οἱ μὴ ἰδόντες καὶ πιστεύσαντες.)
- (30절) 사실 예수께서 다른 표적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Πολλὰ μὲν οὖν καὶ ἄλλα σημεῖα ἐποίησεν ὁ Ἰησοῦς)
[그의] 제자들 앞에서 (ἐνώπιον τῶν μαθητῶν [αὐτοῦ].)
그것들은 이 책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ἃ οὐκ ἔστιν γεγραμμένα ἐν τῷ βιβλίῳ τούτῳ.)
- (31절) 그러나 이것들을 기록하였습니다 (ταῦτα δὲ γέγραπται)
너희들로 하여금 믿도록 하기 위해 (ἵνα πιστεύ[σ]ητε)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ὅτι Ἰησοῦς ἐστὶν ὁ χριστὸς ὁ υἱὸς τοῦ θεοῦ,) 그리고 그의 능력에 의해 믿음으로 생명을 갖게 하려 함이라 (καὶ ἵνα πιστεύοντες ζωὴν ἔχητε ἐν τῷ ὀνόματι αὐτοῦ.)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26-27 절을 읽으십시오. 팔일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자리에는 도마도 있었지요. 제자들에게 오신 예수님은 평안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도마를 향해 못 자국난 손을 보고 옆구리를 만져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권면하십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을 찾은 날을 팔일 후라고 말합니다.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은 8일 후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날짜를 세는 방식은 당일을 하루로 포함하는데 헬라식 표현을 그대로 번역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 이 구절은 우리식으로 이해한다면 7일 후입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오신 날이 부활하신 날 저녁 즉, 일요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날은 한 주 뒤에 돌아온 일요일인 것입니다.] 다시 예수님이 부활하신 안식후 첫날이 되는 거지요 (참조, D.A. Carson, 657).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정확히 일주일 뒤에 모여 있었고,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 왔습니다. 어떤 이들은 일요일을 예배일로 정한 근거를 이 기록에서 찾기도 합니다.

부활하신 날 예수님과 찾아 오셨을 때와 모든 조건이 동일합니다. 그때도 문이 닫혀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오셨고, 동일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제자들에게 못 자국난 손과 창 자국난 옆구리를 보여주신 것처럼 도마에게도 동일하게 보여주십니다. 모든 것을 그대로 반복하셨습니다.

이 사건에서 결코 도마는 단순히 의심 많은 한 개인이 아닙니다. 도마는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우리 개개인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주일에 처음으로 교회를 찾은 이후의 모든 믿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거지요. 왜 그런 걸까요? 주일에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누구나 개인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인하고 믿음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자신들의 죄가 온전히 사해졌고, 죄로 인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강이 지배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예배이지요. 요한은 두 번의 반복된 주일을 통해 예수님이 자신의 부활을 보여주는 광경을 묘사함으로써 택하신 한 사람을 귀하게 여겨서 반드시 찾아오시고 마침내는 믿음을 주시는 예수님의 사역이 이 세상 끝날까지 지속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8-29 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에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네가 나를 보기 때문에 믿느냐?”라고 하시고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아시다시피 도마는 예수님의 못 자국난 손과 옆구리에 자신의 손을 넣어 만져보지 않았습니다. 다른 여느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주요 하나님으로 고백했습니다. 만져볼 필요가 없었지요. 그저 예수님의 말씀으로 족했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합리적 의심과 끊없는 사유를 거친 후 들려 온 예수님의 말씀이 그로 하여금 진리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님이 눈을 뜨는 것을 직접 보지 않아도, 병든 사람이 치유되는 것을 목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이 믿음을 강화할 수는 있어도 믿음을 가져다주지 못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이지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⁴³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⁴⁴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⁴⁵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⁴⁶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 이까 하였으니 ⁴⁷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롬 10:13-17).

도마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합니다. 나의 주라 고백하는 것은 많이 들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사람도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도마의 고백은 이에서 한결음 더 나갑니다. ‘나의 하나님’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사도 요한은 지금까지 요한복음을 쓰면서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입증하려 했습니다. 그가 이를 입증하려 했다는 것은 요한복음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고 믿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요.

도마가 이를 고백한 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첫 번째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제자들은 주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도마에게 “우리가 주를 보았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도마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누가 들으면 경을 칠 말입니다. 신성모독도 이만저만이 아니지요. 하지만 이 고백은 바로 우리가 믿는 삼위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29 절을 다시 읽으십시오. 도마가 고백하자 예수님은 “네가 나를 보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이 구절을 예수님이 도마의 믿음 없음을 책망한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도마뿐만 아니라 나머지 제자들도 모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그분을 주로 믿게 되었으니까요. 자신들 앞에 나타난 예수님을 단지 자신들이 3년간 따르던 그분이 맞다라고 인식하는 정도는 믿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사실 확인이지요.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그분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이지요. 그런데 이들과는 달리 그 이후에 믿게 된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지 않고도 믿었습니다. 게다가 그들 중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전하는데 목숨을 걸었고 그 중 일부는 순교를 당하기도 했지요. 지금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복되다라는 헬라어 ‘마카리오이’(μακάριοι)는 단순히 행복한 상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과 연관되어 해석되어야 하는 단어입니다. ‘마카리오이’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여진 상태를 말합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주와 하나님으로 고백했습니다. 이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곳은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입니다.

“³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⁴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⁵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⁶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임이요 ⁷공홀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공홀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⁸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⁹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¹⁰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마 5:3-10).

그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와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그러한 고백이 모두 하

나님에게 받아들여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고백’=‘구원’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여 주여 부르고 수많은 일을 했다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그런 고백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히 받아들여졌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같은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²¹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²²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²³ 그 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마 7:21-23).

하나님을 짝사랑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받아들였을 거라고 맹신하는 사람들 말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주’요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이해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심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러한 믿음에 거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으로부터 ‘불법을 행하는 자’로 낙인 찍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기에 진정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는 자들이라면 우리는 복된 자들임에 틀림없습니다.

30-31 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다른 표적을 많이 행하셨으나 그모두를 기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요한은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해, 그리고 그의 능력에 의해 믿음으로 생명을 갖게 하기 위해서”라고 밝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전체를 공부하고 나면 고백할 수밖에 없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니 반드시 고백해야 하는 거지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백이 마음 속 깊은 곳에서 우리 나올 때 우리는 그의 능력에 의해 믿음으로 새 생명을 갖게 됩니다. 그것이 요한복음이 독자에게 주는 선물이지요. 당신은 그 선물을 받았나요?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